

아시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우수사례- 한국사례 5

생태체험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인연맺기

- 인천 -

2007년 6월



요약

핵심어

교육, 사회형평성(복지)

배경 및 목표

그동안의 인천의제 21 사업의 내용이 환경, 경제, 사회를 분리하여 분야별로 접근을 해왔다면, 지금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 생태체험이라는 형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계층간 차별없이 공공의 재산인 환경권을 함께 누리고 지켜나가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계획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적 의미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평구에 장애아동 재가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에 파견되는 재가도우미들은 장애우 돌보기와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장애우 가족의 배려하고 장애아동에게 사회성 향상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향후 기초의제에 사업을 이관 확산하여 생태분과와 복지분과가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내용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장애아동 가정파견 도우미 양성교육 실시
- 장애인- 비장애인 생태체험을 위한 자원활동가 교육
 - 현장교육실시, 휠체어 등을 동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교육, 생태감성교육실시
- 소래생태기행을 통한 장애- 비장애인 인연맺기 사업
- 정책사업 : 장애아동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부모- 특수교사 간담회
 - 내년시행을 앞둔 장애아동 학교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천지역적용방안 모색, 입장좁히기

- 생태체험을 통한 장애- 비장애 아동 통합캠프(주제 : 서로 다르지만, 모두소중해요)

생태놀이, 눈썰매, 나무목걸이 산가지 등 실시

- 6개 기초의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생태기행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인연맺기

각 기초의제별로 생태분과와 복지분과 공동사업 실시

* 계양의제 21(계양산편), 남구의제 21(문학산편), 남동의제 21(소래편), 부평의제 21(굴포천편), 동구의제준비위(월미산편) 등 진행 중

사업성과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별을 두지 않은 프로그램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

장애인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 체험

기획팀 단체간의 합의과정을 통한 역량 강화

학교특수학급 도우미 파견사업 확대 진행

장애인을 위한 생태프로그램개발 및 지도자 양성

각 기초의제로 파급 - 구청협조하에 진행 중

(사진자료)

추진단체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우) 122-706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 환경기술진흥원 3층

T) 02-358-1133 F) 02-358-2253

E-mail: kicsd@kicsd.re.kr

Website: www.kicsd.re.kr

담당자

윤경효 연구원

E-mail: deniseyoon76@gmail.com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 시티은행빌딩 8층

T) 032-433-2122 F) 032-433-2133

E-mail: iagenda@hanmail.net

Website:

담당자

류영신 사무차장

E-mail: iagenda@hanmail.net

사업소개

인천광역시 특성

인천은 수도권권의 관문이자 7~80년대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도시팽창, 비합리적인 도시구조, 문화, 복지, 교통, 환경, 등 사회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우선주의의 병폐속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바다를 둘러싸고 항만개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 사업, LNG 인수기지,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시설이 늘어서 갯벌을 통해 이루어지던 도심 대기오염 정화 기능이 상실되었다. 다만 신항만 예정지 부근의 송도일부 갯벌, 소래지역과 강화 옹진군의 도서지역등의 자연환경 정도가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를 관통하는 계양산, 철마산, 주안산, 문학산,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S자 녹지축은 도로개설등으로 끈어져 도심녹지로써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제조업경기는 바닥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일부 제조업 중 철강화학 산업, 서구주물단지의 경기가 조금 살아 있고, 남동공단의 일부 중소기업이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2020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인천의 테마는 항만 물류도시로 정해져 수도권과 중국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도시계획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복지와 환경 문화에 대한 고려나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에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고려와 인천에 남아있는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의 과제이다. 따라서 인천의제에서 사업을 제안했을때, 흔쾌히 참여하고자 하는 그룹들이 모여들었다. 인천의제 21에서 추진한 생태체험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인연맺기 사업은 환경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실시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례조사를 했을때, 일부 지역단체 두개를 제외하고는 전무함) 독창적인 아이템이었고,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확대하고 해결하고자 필요한 사업이었다. 또한 의제가 아니고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사업이다.

| | | | | |
|-----------------------------|---|--------------------|-----------------|-----------------|
| 1. 행정구역명 | 인천광역시 | | | |
| 2. 인구수 | 총 2,600,495 명 | | | |
| | 20 대미만: 700,207 | 20~30 대: 887,445 | 40~50 대:747,649 | 60 대 이상:265,145 |
| 3. 세대수 | 총 933,686 세대 | | | |
| 4. 면적(km ²) | 994.12 km ² | | | |
| 5. 인구밀도(명/km ²) | 2,622 km ² | | | |
| 6. 지방정부 1년 예산액 | 2,720,286,000,000 원 | | | |
| 7. 재정자립도(%) | 68.5% | | | |
| 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74,966 명 | | | |
| 9. 등록 장애인 수 | 93,869 명 | | | |
| 10. 의료기관 수 | 2,308 | | | |
| 11. 학교 수 | 초등: 210 개교 중등: 117 개교 고등: 105 개교 대학: 13 개교 | | | |
| 12. 산업별 취업자 수 | | | | |
| 농림/어업 | 광공업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 합계 | |
| 5,000 | 349,000 | 842,000 | 1,196,000 | |

사업내용

배경 및 목적

그동안의 인천의제 21 사업의 내용이 환경, 경제, 사회를 분리하여 분야별로 접근을 해왔다면, 지금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 생태체험이라는 형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계층간 차별없이 공공의 재산인 환경권을 함께 누리고 지켜나가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계획하였다. 또 하나는 시범사업적 의미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평구에 장애아동 재가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에 파견되는 재가도우미들은 장애우 돌보기와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장애우 가족의 배려하고 장애아동에게 사회성 향상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향후 기초의제에 사업을 이관 확산하여 생태분과와 복지분과가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들은 시민 사회 단체가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부터도 소외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소외계층에게 관심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소외계층과 함께 나눔의 장을 열어가는 계기로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
- ②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가장애인 및 정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책과 활동보조인 양성을 통해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당사자와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마련한다.
- ③ 양성된 활동보조인 및 자원활동가 교육을 통해 생태기행을 통한 장애-비장애인연땀기운동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참여그룹 및 인원

- ※ 행정 2명 :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장애인화장실(2000 만원 상당) 지원
- ※ 기업 10명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서 겨울 통합캠프 지원
- ※ 시민사회 10명 : 기초의제, 시민사회단체 등 참여, 프로그램 전체 기획 논의, 운영
- ※ 기타 600명 : 의제 위원, 장애인, 자원활동가 등 행사참가자

소요예산 및 재원

| 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비 구성내용 | 재원조달 방법 |
|--|----------|---|--------------|
| 장애아동 가정파견 도우미 양성교육 실시 | 515 만원 | - 강사비 300 만원 - 자료집 100 만원 - 간식, 준비비 115 만원 | 인천의제 21 사업예산 |
| 소래생태기행을 통한 장애-비장애인 인연맺기 사업 | 254 만원 | - 1 차 135 만원 - 2 차 119 만원 * 자원활동가 교육강사비 재료비, 강사비, 식대간식 등 | 상동 |
| 장애아동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부모- 특수교사 간담회 | 33 만원 | - 강사비, 자료복사비 | 상동 |
| 생태체험을 통한 장애- 비장애 아동 통합캠프(주제 : 서로 다르지만, 모두소중해요) | 530 만원 | - 강사비, 재료비, 숙식비 | 상동 |
| 6 개 기초의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생태기행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인연맺기 | 1,700 만원 | - 강사비, 재료비, 버스비 등 | 상동 |

추진과정

인천의제 21 은 98 년 의제작성이후 8 년째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의제실천을 위한 사업들을 해왔지만, 거창한 의제에 비해 사회적 약자 및 시민참여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부족했다. 특히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통합적 사고를 통해 접근하기 보다는 분야별로 각자의 전문영역을 중시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 전문성에 치우치고 있었다.

사회통합적으로 지속가능한 인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그룹의 의제참여와 실천사업의 내용이 필요했다. 이러한 고민이 절정에 이를 무렵, 인천지역사회는 교육청과 학생부모교사그룹간의 장애 아동통합교육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었다.

의제가 특히 광역의제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려면 어떤사업들을 통해서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속에서 다양한 집단을 만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테이블과 약간의 시범사업, 그리고 환경과 복지사회를 접목시킨 생태체험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기획과정에는 실업극복인천본부, 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대 인권사랑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기초의제 사무국장들이 수시로 모여 회의를 열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고, 특히 소래생태체험을 통한 장애아동과 인연맺기 사업 이후,자원활동가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받아들인 대학생 10명이 장애아동들과 인연을 맺어 짝꿍이 되어 주말학교를 1년째 운영하고 있다. 향후 대학의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계획에는 장애아동보육지원조례 제정 준비사업이 들어가 있었으나 교육청에서 장애아동 통합교육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내용 준비가 시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 아동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통합부모회와 특수교사와 교육청 간의 입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타지역 사례수집 등을 통해 차분히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범사업으로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겨울 통합캠프를 개최하면서 2006년 사업으로 생태기행을 통한 장애인- 비장애인 인연맺기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인천지역은 각 기초의제마다 산이나 하천, 갯벌을 끼고 분과를 구성하였는데(예, 계양의제 계양산 분과, 남구의제 문학산분과 등) 그만큼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어 개발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광역의제와 기초의제 공동사업으로 각 기초의제

복지분과와 생태분과가 결합,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장애인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인연맺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① 계획 수정의 문제

초기계획에는 장애아동보육지원조례제정을 최종 목표로 가정과견도우미양성, 겨울통합캠프, 생태체험을 통한 인연맺기, 토론회개최를 통한 정책제안, 조례제정 준비 등이었으나 교육청에서 장애부모들의 요구를 받아 지원예산을 책정하면서 중간에 계획이 수정되어 생태체험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인연맺기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② 장애인 선정의 문제

장애그룹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약간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장애그룹 선정의 기준은 저소득층 장애인 우선이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시설을 집중 섭외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설득해나갔다.

③ 프로그램, 전문가섭외의 어려움

장애인을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강사섭외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환경관련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많지만, 장애인과 함께한다는 부담감이 컸고, 프로그램 또한 비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서 접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획팀에서는 우선 생태관련 프로그램을 수집하여 답사와 휠체어 체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교육을 받고 하면서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돌렸다.

평가 및 향후 계획

장애인-비장애인의 차별을 두지 않은 프로그램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함께했던 그룹은 통합부모회 소속 장애아동 100 여명, 해피투게더 남동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장애인 300 여명 등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생태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환경센터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교보생명에서 프로젝트를 받아 전문가 양성과 교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의제에서 자문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음.

현재 기초의제별로 후속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기초의제로 확산 중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

인천의제 21 은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와 인천남부자활후견기관이 공동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가정 파견도우미 사업을 기획 운영하였다. 교육생들은 실업상태의 저소득층 주부 30 명으로 15 일, 60 강 120 시간의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일반교육을 받았다. 강사들은 인천의제 복지분과 위원 및 심리치료사 등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이다. 2005 년 8 월부터 10 개의 가정과 학교특수학급으로 파견을 하면서 활동 중이다.

장애인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 체험

기존의 장애인을 위한 야외 프로그램중 산행이나 갯벌체험 등이 있지만, 자연속에서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감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장애인들과 함께 들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의 존재를 알고, 자연을 통해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켜야할 자산인가를 느끼고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은 극히 드물다. 특히 소래해양생태공원 체험프로그램 진행시에는 남동장애인복지관에 다니지만, 남동구에 이렇게 가까이 이런 좋은 곳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자원활동가와 장애인들은 이곳에 택지계획이 있다는 말에 소래가 택지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꼭 지켜야 하는 자연유산인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함께 느끼고 개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획팀 단체간의 합의과정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획팀에 모인 단체들은 다양하고 참가한 목적 또한 단체마다 달랐다. 참가단체들의 의견을 좁히고 생태체험을 통한 장애인- 비장애인 인연맺기 프로그램으로 모아지기까지 여러 차례의 합의과정이 필요했다.

첫째로 전체 그림에서 기획의도에 혼선이 생기면서 위기를 겪었다. 1 차로 진행했던 장애아동보육지원조례사업이 교육청이 예산지원을 확정하며서 불필요하게 됨으로 해서 사람은 남았으나 사업이 없어진 문제가 발생했다. 논의 끝에 실업과 자활에서 가정파견도우미 후속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나머지 단체들로 2 차 기획팀을 구성하여 생태체험 장애- 비장애 인연맺기사업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확정의 문제 프로그램 기획회의를 하면서 생태를 접목시키다보니 복지쪽 단체들과의 이견이 많았다. 우선 참가인원수의 문제인데 복지계 쪽에서는 행사를 여러번 할 수 없으니 한번에 몰아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설득해내기 위해 기획팀 전체가 일정을 잡아 세차례의 답사를 하고 전문강사를 어렵게 섭외하여 자체교육을 받았다. 교육 후 월체어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나눠서 한번에 100 명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합의와 논의를 통한 역량강화 기획팀 논의자체가 하나의 거버넌스 실현과정이었다. 생태적 감성이 전문한 복지계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하면서 생태체험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장점을 주는지 체득하게 하는 과정속에서 스스로 준전문가가 되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초의제와 공동행사에 강사역할을 하고 있다.그리고 환경과 복지를 통합한 이 행사를 왜 의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 알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특수학급 도우미 파견사업 확대 진행

장애아동부모들과 특수교사들은 학교 특수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학교 특수학급에 지원된 인원은 특수교사 한명에 보조교사 한명이다. 특수학급 한반의 인원은 40 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동교육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교육청은 예산의 문제를 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 부모들로서는 학교에 더 많은 보조교사들이 배치되기를 원한다. 실업, 자활과 공동으로 진행한 가정파견도우미(보조교사 양성) 교육사업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의 가능성을 경험했기에 장애아동 부모들의 요구와 일부 특수교사들의 요청을 받았으나, 예산의 문제로 인해 일부만을 파견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자활후견기관이 삼성의 지원을 받아 학교특수학급에 교육이수자들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계속 확산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장애인을 위한 생태프로그램개발 및 지도자 양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인을 위한 생태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번의 시행착오끝에 장애인을 위한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환경단체에서 진행해온 생태프로그램 중 장애인과 장소의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진행하고, 인연맺기 프로그램으로는 짝꿍끼리 한그릇에 비빔밥 비벼먹기, 폴로라이드 사진찍어 나만의 액자만들기 등은 기획팀이 여러차례의 논의와 답사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은 작년부터 1 년째 주말학교“꿈샘”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10 명과 장애아동 10 명이 짝꿍이 되어 주말마다 생태프로그램 및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기초의제로 파급 - 구청협조하에 진행 중

각 기초의제와 공동으로 생태,복지분과에서 후속 작업 진행 중

작년 동아일보와 지역신문에 보도되었고, 2005년 9월 11일날 실시한 소래생태체험 - 장애인- 비장애인인연맺기 사업의 경우는 KBS 2TV‘사랑의 가족’에 20분간 방영되었고, 자원활동가로 참가했던 대학생대표와 일반인, 장애인 대표가 스튜디오에 가서 사회자(강원래)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행사취지나 내용을 설명했다.

인터뷰

(사업 참가자-장애인/비장애인, 기초의제 관계자 등 3인에 대한 인터뷰내용 및 인터뷰 사진 첨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요소

지역 지속가능성

사회적 측면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별을 두지 않은 프로그램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함께했던 그룹은 통합부모회 소속 장애아동 100 여명, 해피투게더 남동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장애인 300 여명 등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생태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환경센터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교보생명에서 프로젝트를 받아 전문가 양성과 교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의제에서 자문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음.

현재 기초의제별로 후속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기초의제로 확산 중

경제적 측면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

인천의제 21 은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와 인천남부자활후견기관이 공동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가정 파견도우미 사업을 기획 운영하였다. 교육생들은 실업상태의 저소득층 주부 30 명으로 15 일, 60 강 120 시간의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일반교육을 받았다. 강사들은 인천의제 복지분과 위원 및 심리치료사 등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이다. 2005 년 8 월부터 10 개의 가정과 학교특수학급으로 파견을 하면서 활동 중이다.

환경적 측면

장애인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 체험

기존의 장애인을 위한 야외 프로그램중 산행이나 갯벌체험 등이 있지만, 자연속에서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감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장애인들과 함께 들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의 존재를 알고, 자연을 통해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켜야할 자산인가를 느끼고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은 극히 드물다. 특히 소래해양생태공원 체험프로그램 진행시에는 남동장애인복지관에

다니지만, 남동구에 이렇게 가까이 이런 좋은 곳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자원활동가와 장애인들은 이곳에 택지계획이 있다는 말에 소래가 택지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꼭 지켜야 하는 자연유산인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함께 느끼고 개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트너십

학교특수학급 도우미 파견사업 확대 진행

장애아동부모들과 특수교사들은 학교 특수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학교 특수학급에 지원된 인원은 특수교사 한명에 보조교사 한명이다. 특수학급 한반의 인원은 40 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동교육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교육청은 예산의 문제를 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 부모들로서는 학교에 더 많은 보조교사들이 배치되기를 원한다. 실업, 자활과 공동으로 진행한 가정과견도우미(보조교사 양성) 교육사업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의 가능성을 경험했기에 장애아동 부모들의 요구와 일부 특수교사들의 요청을 받았으나, 예산의 문제로 인해 일부만을 파견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자활후견기관이 삼성의 지원을 받아 학교특수학급에 교육이수자들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계속 확산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장애인을 위한 생태프로그램개발 및 지도자 양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인을 위한 생태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번의 시행착오끝에 장애인을 위한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환경단체에서 진행해온 생태프로그램 중 장애인과 장소의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진행하고, 인연맺기 프로그램으로는 짝꿍끼리 한그릇에 비빔밥 비벼먹기, 폴로라이드 사진찍어 나만의 액자만들기 등은 기획팀이 여러차례의 논의와 답사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은 작년부터 1 년째 주말학교“꿈샘”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10 명과 장애아동 10 명이 짝꿍이 되어 주말마다 생태프로그램 및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기초의제로 파급 - 구청협조하에 진행 중

각 기초의제와 공동으로 생태,복지분과에서 후속 작업 진행 중

역량강화(참여 및 대화)

기획팀에 모인 단체들은 다양하고 참가한 목적 또한 단체마다 달랐다. 참가단체들의 의견을 좁히고 생태체험을 통한 장애인- 비장애인 인연맺기 프로그램으로 모아지기까지 여러 차례의 합의과정이 필요했다.

첫째로 전체 그림에서 기획의도에 혼선이 생기면서 위기를 겪었다. 1 차로 진행했던 장애아동보육지원조례사업이 교육청이 예산지원을 확정하며서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사람은 남았으나 사업이 없어진 문제가 발생했다. 논의 끝에 실업과 자활에서 가정과견도우미 후속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나머지 단체들로 2 차 기획팀을 구성하여 생태체험 장애- 비장애 인연맺기사업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확정의 문제 프로그램 기획회의를 하면서 생태를 접목시키다보니 복지쪽 단체들과의 이견이 많았다. 우선 참가인원수의 문제인데 복지계 쪽에서는 행사를 여러번 할 수 없으니 한번에 몰아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설득해내기 위해 기획팀 전체가 일정을 잡아 세차례의 답사를 하고 전문강사를 어렵게 섭외하여 자체교육을 받았다. 교육 후 휠체어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나눠서 한번에 100 명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합의와 논의를 통한 역량강화 기획팀 논의자체가 하나의 거버넌스 실현과정이었다. 생태적 감성이 전무한 복지계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하면서 생태체험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장점을 주는지 체득하게 하는 과정속에서 스스로 준전문가 되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초의제와 공동행사에 강사역할을 하고 있다.그리고 환경과 복지를 통합한 이 행사를 왜 의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 알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도화 여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사례 홍보와 모델 확산

작년 동아일보와 지역신문에 보도되었고, 2005년 9월 11일날 실시한 소래생태체험 - 장애인- 비장애인인연맺기 사업의 경우는 KBS 2TV‘사랑의 가족’에 20 분간

방영되었고, 자원활동가로 참가했던 대학생대표와 일반인, 장애인 대표가 스튜디오에 가서 사회자(강원래)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행사취지나 내용을 설명했다.